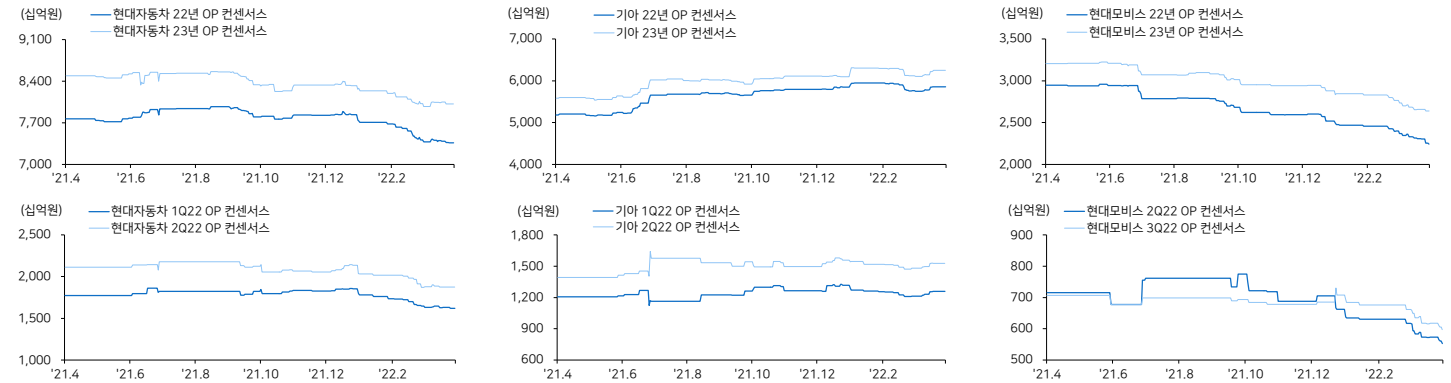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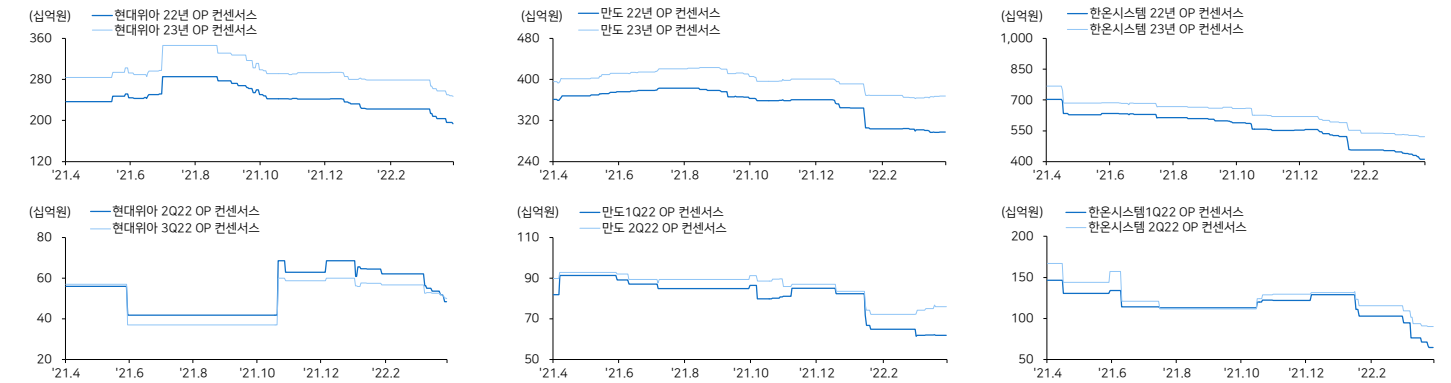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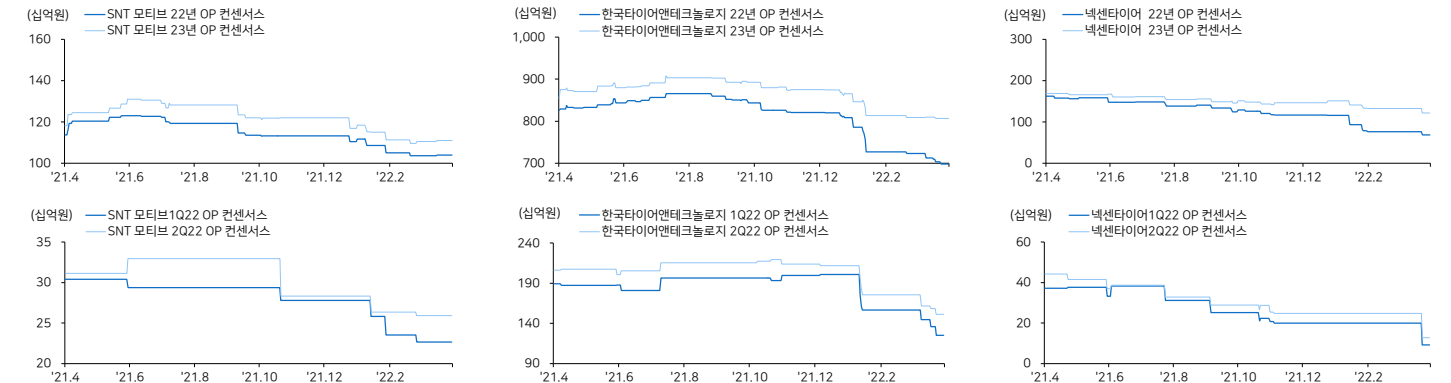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中 상하이 이어 베이징도 봉쇄...산업계 '발 동동'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 중국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봉쇄 우려에 직면하자 국내 산업계도 위기감이 조성됨. 이미 일부 업계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각 산업 분야로 파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https://bit.ly/30Lqbs2>

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시기 오늘 결정...중기부 최종 권고안 확정 (뉴스1)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세종시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 이날 결정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파는 중고차를 이르면 2분기 안에 구매 가능.

<https://bit.ly/3LpVsyw>

Ford earnings weighed down by Rivian stake (TechCrunch)

포드는 리비안 지분가치의 54억 달러 하락으로 1분기 -31억달러 순손실을 기록함. 비용 증가와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115-125억 달러 EBIT 가이던스를 유지했으며, 향후 리비안 시총 변화에 따른 실적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https://cnb.cx/37TFP3E>

Data Reveals Tremendous Growth in Volumetric Energy Density Of EV Batteries (InsideEVs)

지난 10년간 리튬이온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급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08년 55Wh/L에서 2020년 450Wh/L로 개선됨. 높은 에너지밀도는 동일 에너지 함량을 가졌을 때 더 부피가 작은 배터리 제작에 중요함.

<https://bit.ly/3y2q6tQ>

노조 편향'韓에 누가 투자하겠나'...떠나는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 일침 (머니투데이)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해 경쟁력이 충분한데도 노조 문제 등 때문에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발언함. 그는 최근 3년간 한국GM의 적자폭을 -8,594억원에서 -1,752억원으로 급감시킨 바 있음.

<https://bit.ly/30KfjKE>

U.S. auto sales to fall in April on tight inventories, rising rates (Reuters)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와 가격인상으로 인해 4월 미국 신차 판매가 yoy -2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에는 생산이 개선될 수 있지만 기존 주문을 소화한다면 딜러 재고 축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https://reut.rs/3y5KCCw>

BYD posts net profit of about \$123 million in Q1, up 241% year-on-year (CNEV Post)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1분기 순이익은 yoy +241% 증가한 1.23억 달러로, 회사 가이던스 범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경기침체와 락다운 등의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NEV 판매가 성장동력이 됐으며,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됨.

<https://bit.ly/3vQgz6A>

L2 assisted driving systems reach 35% penetration in China's NEV market in Q1, IDC says (CNEV Post)

중국 NEV차량의 성장과 함께 L2 자율주행 보급률이 ICE 차량 보급률 20%보다 높은 35%를 기록함. NEV차량 시장 성장과 함께 L2 자율주행 기술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IDC는 전망함.

<https://bit.ly/3MCSved>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